

건의문

방송문화 향상과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오랜기간의 중앙 집권 체제에서 벗어나 이제 자치단체장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선출 하게 되는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발전의 역할과 기능을 분담해야 하는 지방자치 원년을 맞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모든 환경의 변화에 능률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시민 여론 형성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 할 K.B.S 대구방송 총국 구미중계소를 구미방송국으로 승격 시켜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530 만평이라는 전국 최대의 내륙 전자 공업단지를 끼고 있는 국제 공업도시로서 세계화를 겨냥한 집중적인 홍보전략이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 수출의 약 10% 인 80 억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의 전자공업과 경북의 중심도시로서 모든 행정여건과 입지조건을 골고루 갖추고서도 아직까지 방송국 하나없이 대구방송 구미중계소로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세계화 . 지방화시대에 대비치 못하는 안일한 처사라 사료되어, 30만 구미시민을 대표하여 우리 의원 일동은 이렇게 건의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님!

우리시는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 나름대로의 독창성과 자율성을 익혀가면서 신속한 홍보매체를 통한 지역의 발전과 국제화를 추구해야 할 크나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한 제품을 팔기 위해 국내 도시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제 도시와 경쟁을 벌여야 생존할 수 있는 현실에서 언론 홍보 매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역 발전 뿐만 아니라, 방송 문화의 발전과 세계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K.B.S 대구방송총국 구미중계소를 구미 방송국으로 승격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미시가 수출 입국의 기둥으로서 긍지와 보람으로 21세기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 매체 확충에 집중적으로 배려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995. 4. 25.

구 미 시 의 회 의 원 일 동